



'텔미' 열풍 여성그룹 원더걸스

'올해의 스타대상' 등 3관왕

올해 '텔미(Tell Me)' 열풍을 일으킨 여성 그룹 원더걸스가 엔터테인먼트 전문가가 뽑은 '올해의 스타대상'을 차지했다.

스포츠한국은 1~15일 기자와 방송 PD, 대중문화평론가, 연예기획사 대표 등 엔터테인먼트 전문가 1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원더걸스가 '올해의 스타대상'에 올랐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또 '올해의 가수'로 선정된 데 이어 '텔미'가 '올해의 노래'로 뽑혀 3관왕의 기쁨을 누렸다.

최수종-하희라 부부 '버블쇼'에 불우아동 초대

최수종-하희라 부부가 26일 서울 능동 어린이대공원내 극장에서 열리는 '팬의회' 희어트 버블쇼에 불우 아동 1천여 명을 초대한다.

버블쇼 흥보대사이기도 한 이들 부부는 자신들이 참여하고 있는 봉사단체와 연관된 장애·불우·결식아동 등 1천여 명을 초청했다. 최수종-하희라 부부는 14일 사회복지법인 하트-하트재단 흥보대사로 위촉되기도 했다.

**걸스카우트 전남연맹, 곡성 '한우리공동체' 위문**

한국 걸스카우트 전남도연맹 전정순 연맹장(사진 중앙 왼쪽)과 간부 12명은 17일 오후 곡성군 석곡면 영곡리 불우노인시설 한우리공동체를 방문, 위문금과 선물을 전달하고 노인들을 격려했다. (곡성군 제공)

농협광주본부, 태안 복구성금 500만원 전달

농협광주지역본부(본부장 신성수·오른쪽 세번째)는 최근 충남 태안 해상원유 유출사고 피해현장을 찾아 태안지역 농협관계자들에게 피해복구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화족

▲이원영(주)에베레스트 린도 대표이사)씨 장남 삼훈(시슬리 코리아 기획전략팀 대리)군 박기정(전남일보사 사장)씨 딸 지선(주)한택 해외 마케팅본부 대리)양=21일(금) 오후 6시30분 서울 플라자호텔 그랜드 볼룸,

▲박병훈씨 장남 도현군 김범남(광주시 비서실장)씨 막내 윤미안=22일(토) 오전 11시 애벌루션웨딩 컨벤션 2층 라벤더홀, 010-3650-9336

▲박종천(주)광물개발 대표이사)씨 장남 진혁군 김창남(남영건설 주) 대표이사)씨 장녀 남연양=22일(토) 낮 12시 무등파크호텔 4층 컨벤션홀,

▲임중석(교장)씨 막내 인호(학원장)군 서정설씨 막내 인영(디자이너)

녀)양=22일(토) 낮 12시40분 오피라하우스 그랜드볼룸 3층.

▲문장호(동양화가)씨 차남 제철(동성고 교사)군 조정환(전 대림산업 근무)씨 장녀 선주양=23일(일) 낮 12시20분 메리어트웨딩홀 1층 사파이어홀,

▲장일성(동해건업㈜ 대표이사)씨 장남 동진군 조점숙씨 장녀 임서영양=23일(일) 오후 1시 무등파크호텔 4층 컨벤션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권상담=월~금 오전9시~오후5시, 국번 없이 1331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

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관리 실시=직장인 대상으로 흡연의

▲금·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연보조제 및 상담문의 363-2240

▲호남해비리기 아동센터 무료 상담 및 의료·법률지원=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에게 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의료·법률지원 및 심리 치료 등 One Stop 서비스. 232-1375. http://forchild.or.kr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영아일시 보호소 무료 상담=아동 일시 보호 원하는 경우, 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 및 시설 입소 안내. 222-1095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아동상담소 무료 상담=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24시간 출장 상담도 가능). 미혼모 시설 입소 안내. 227-8877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문의 652-1366, 434-1366 www.gene-korea.com

▲광주생명의 전화 무료 상담=24시 전화 상담 전국 공통 1588-9191, 광주 223-9191. 면접 상담은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지와 격려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 2층.

▲여성증진센터 제 18회 동창회(회장 노시혁) 월례회=18일(화) 오후 7시 삼원식당. 225-0465

▲북성증 제 19회 동창회(회장 김현주) 월례회=19일(수) 오후 6시

일송정, 525-9977
▲조대부고 19회 동창회(회장 기동도) 송년모임=20일(목) 오후 6시 미연회집. 011-636-0423

▲목포 중·고 재광 동창회(회장 이명남) 제 30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21일(금) 오후 6시 오페라하우스 컨벤션홀. 222-0030

▲송정서초교 제 22회 동창회(회장 김종복) 모임=22일(토) 오후 6시30분 대한해협회. 944-8254

▲조대부고 31회 동창회(회장 김병석) 송년의 밤=22일(토) 오후 7시 보성녹계. 653-9993

▲사랑모아 가족복지회 회원 모집=종이공·독서모임·성교육 스터디 강사, 생활체육 배드민턴 회원 모집. 385-0422

▲유급지원병(전문병) 모집=중증 이상 학력으로 해당 특기 자격·면허 또는 전공학과 이수자. 모집 인원 1천명. 의무복무기간은 일반병과 동일, 연장복무기간은 하사로 영내 거주하며 이 기간중 월 120만원·지

향사 참례=22일(토) 오전 10시.

향우회

▲재광 보성군 향우회(회장 이하은)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21일(금) 오후 5시30분 호남대 회의실.

▲재광 영광군 향우회 송년의 밤=21일(금) 오후 6시30분 한우숯불갈비. 673-2597

▲재광 봉황 향우회(회장 서한중) 정기총회=22일(토) 오후 5시 조선의 땅. 362-7092

모집

▲사랑모아 가족복지회 회원 모집=종이공·독서모임·성교육 스터디 강사, 생활체육 배드민턴 회원 모집. 385-0422

▲수원백씨 광주·전남 종친회(회장 백정인) 송년모임=20일(목) 오후 6시 흥농갈비. 011-634-8728

▲동래정씨 광주·전남 종친회(회장 정한영) 부산 화지 시조선산 동지

원장려수당 월 60만원 지급. 문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팀 230-4246~9

부음

▲김순녀씨 별세 윤광렬(동화예술 회장)씨 상배 도준(동화악품 부회장)·길준(동화악품 사장)·금준씨 모친상 이우용(동화악품 전 부회장)

씨 빙모상 이철하(동화감독)씨 외조 모상=발인 20일(목)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0호. 02-3010-2631

▲민종남씨 별세 기영선씨 상배 상진·상귀(화순을 사무소)씨 모친상=발인 18일(화) 화순전남대병원 장례식장.

광주에서 30분 아름다운 청계공원
개장나圃모 트랙볼
2,100만 원 50% 할인 받자!

"나이는 숫자 일 뿐... 인간내면 詩로 표현해 보고 싶어"

■ 희수(77세) 넘긴 나이에 계간지 통해 등단한 정금열 씨

"곧 팔십을 바라보지만, 난 이제 막 등단한 신인이라오."

'희수(喜壽·77세)'도 넘긴 나이로 계간지를 통해 등단, 글쓰기 실력을 인정받은 정금열(78·광주시 동구 궁동)씨의 말이다. 등단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시조 공모전에서 상상을 받는 경경사를 맞았다.

예술의 거리에서 '춘추서림' 운영

정씨는 서울에서 발행하는 계간지 '대한문화' 주관 '제20회 대한문화 신인상'에 시 3편이 당선되면서 등단했다. 정씨의 시는 '대한문화' 2007년 겨울호에 실렸다.

'중국에 가서'와 '귀향', '죽제' 등 당선작에 대해 심사위원단은 "현대적 표현미만 가미된다면 대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금 '나이 든 티'가 나긴 하지만 문학적 완성도는 문학에 대한 열정을 뛰어넘어 있다.

제 없다는 얘기다.

또 전라시조문화회가 주관하는 '제9회 가람 시조현상·공모전'에서는 시조 '한가위'로 2위상 인 차상을 차지했다. 정씨가 70년 넘게 꾹 담아온 문학에 대한 열정을 뛰어넘어 있다.

정씨는 사실 문자와, 그리고 책과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이다. 50년 넘게 광주시 동구 '예술의 거리'에서 '춘추서림'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읽을 줄이나 알았지, 뭐 시나 시조 같은 것

들은 쓸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보아오던 가림'

이 있었던지 내게도 문학적 감성이 있었나봐.

우연히 끼적거린 메모가 이런 결과를 낳게 했죠."

동구 총장동 주민자치위원회로 활동 중인 정

씨는 지난 여름 순천시 삼산동 주민자치위원회들과 조계산 등반대회를 가진 적이 있다. 당시 순

천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 '우리의 산

회(散會)를 아쉬워하며'라는 제목의 시조를 메모지에 적었다. 메모를 챙겨둔 순천의 한 위원이 며칠 후 '선생의 시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싶다'는 의견을 전해온 것이다.

정씨는 "그 사람이 전화에서 '함께 했던 사람 들이 그 시조를 읽고 감동받았다. 혹시 시도 쓰시나?'고 했다"며 "그때 나도 웬지 모를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70년 내재 문학열정 뒤늦게 활활

이후 정씨가 친하게 보낸 시조 몇 편이 종친회에 실렸고, 이후로는 일사천리(一瀉千里)로 일이 진행됐다. 정씨는 자신감을 얻은 뒤 산수도서관에서 열리는 문학강좌에 나갔던 것도 도움이 많이 됐다고 말한다. 시조를 주로 쓰는 이유는 '봐오던 것이 그것'이고, 외우고 있는 문(頌文)도 시조이기 때문이다.

"본격적으로 공부해야죠. 심사위원회가 1920년대 참가자를 연상시킨다"는 지적, 블린 말 아닌 것 같아요. 취미로 글 쓰는 사람들은



부분 자연을 노래하기 쉬운데, 인간 내면을 시로 표현해보고 싶어요."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공로상-김백수·최향섭씨

김사파-심상돈·조덕현씨



명의 현재 회원을 더 놀려 명실상부한 광주마라톤연합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과기원 이광희·김진영 교수 등 8명**'미래를 만드는 우수과학자' 선정**

〈이광희 교수〉 〈김진영 교수〉

지에 실었다.

이 밖에 시각에 의한 의식 생성의 기초원리를 규명한 논문을 '네이처 뉴로 사이언스'에 발표한 서울대 심리학과 이상훈 교수, 외국에서 활동 중인 미국 컬럼비아대 박사였던 '셀' 지에 발표했으며, 경상대 생화학·분자 생물학과 김위연 연구교수는 시험에 선정된 우수과학자를 초청해 노고를 치하할 예정이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광주챔프마라톤클럽 '송년의 밤'

광주챔프마라톤클럽이 지난 15일 광주 외식산업 연회장에서 창단 기념